

박경리 초기 장편소설의 여성/문학사적 위치

—전쟁, 여성, 선정주의는 어떻게 여성문학의 전통이 되었나

김양선

한림대학교 일송자유교양대학 교수

목차

- 1 서론
- 2 청년-여성의 생존에 기입(記入)된 전쟁, 양공주와 코뮤니스트
- 3 섹슈얼리티와 사랑, 정념의 두 축
- 4 결론

이 글은 한국전쟁에 대한 젠더화된 인식과 비판이라는 범주에서 지금까지 연구장에서 미흡하게 논의됐던 박경리의 장편소설 『재귀열』과 『애가』를 전쟁, 여성, 선정주의라는 하위장르의 특성을 구현한 박경리 글쓰기의 전통의 출발점에 있는 프로토텍스트(prototext)로 보고 적극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재귀열』과 『애가』에서 청년-여성의 생존과 일상에 기입된 전쟁은 양공주라는 섹슈얼리티의 낙인, 코뮤니스트의 가족이라는 사상적 낙인으로 형상화된다. 두 소설은 초기 단편소설에서 맹아적으로 제시되었던 전시 하 여성의 조건을 여성인물의 열정적이거나 낭만적 사랑, 납치, 성폭력, 실종과 같은 선정적이고 멜로드라마적인 요소에 녹여냈다.

또한 두 소설은 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를 남편의 동생에 대한 연정이나 애육, 친족간의 불륜이라는 선정적 방식으로 풀어내는 한편, 낭만적 사랑, 열정적이고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이상을 제시함으로써 전후를 책임질 남녀 청년 세대가 개인과 감정, 열정을 통해 소통과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두 소설은 전후의 불안한 사회를 남성의 서사와는 다르게 그렸다는 점에서 남성 중심의 정전 외부에서 정전의 유동성을 심문한다. 50년대 후반에 발표된 두 소설의 주요 모티프들은 이후 60년대 장편소설들에서 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나 생존의 서사(『시장과 전장』)로, 여성-청년의 불안한 사랑의 서사(『파시』, 『푸른 운하』, 『녹지대』)로 확장되어 간다. 그런 점에서 『재귀열』과 『애가』는 이후 장편들의 세계를 예시하는 프로토텍스트로서, 박경리 고유의 여성글쓰기의 전통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국문핵심어: 여성전통, 프로토텍스트, 멜로드라마, 전쟁, 젠더, 선정성, 대중문학

1 서론

박경리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토지학’이라고 부를 정도로 『토지』에 쏠려 있지만, 『토지』 이전 작품들에 대한 연구성과도 만만치 않게 축적되어 왔다. 작가

박경리를 대중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한 『표류도』를 기점으로 1950년대 후반, 1960년대 박경리의 장편소설들은 근대(성)과 여성(성), 멜로드라마의 정치성, 모성 이데올로기, 정신분석학적 접근, 여성교양이나 법률과 같은 제도에 대한 여성주의적 연구라는 자장 안에서 논의되어 왔다. 특히 『토지』 이전 작품세계에서 작가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내상을 여성-젠더의 시각으로 시종 일관 형상화했다. 『시장과 전장』, 『파시』처럼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부터 『표류도』처럼 전후를 배경으로 한 작품까지, 단편 「불신시대」부터 「쌍두아」까지 작가 박경리는 근대 전환기, 한국전쟁 등 근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때로는 생존을 위해, 또 때로는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과 자기 정체성 탐색을 위해 기존 질서에 저항하고, 파멸조차 서슴지 않는 강렬한 여성들을 그려왔다.

그런데 박경리의 작품연보를 보면 첫 장편소설 『아가』(1958)를 발표한 후, 『재귀열』(1959), 『표류도』(1959)를 기점으로 60년대에 장편대중소설을 집중적으로 발표한 점이 눈에 띈다. 이런 경향은 50년대 후반, 60년대 문학 장과 미디어 장에서 신문이나 잡지 연재소설, 대중소설의 급증이라는 흐름과 맞물려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생계를 위해 작품을 써야 했던 작가의 사정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글의 첫 번째 문제의식은 이 시기 박경리의 장편대중소설들 중에서도 대표작으로 평가되는 몇몇 작품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집중되는 위계화와 ‘정전화’가 이루어졌고, 기왕의 단편소설, 본격소설 중심의 정전화의 외곽에서 이루어진 하위장르의 정전화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령 『시장과 전장』, 『표류도』를 한국전쟁과 전후 사회를 전쟁미망인의 시각에서 비판한 소설로 보거나, 여성주체의 정체성 투쟁이라든가 성장의 관점에서 해석한 연구들, 『성녀와 마녀』를 성녀와 탕녀의 이분법을 한편으로는 재생산하면서 균열을 내는 양가성을 지닌 작품으로 해석한 연구, 『김약국의 딸들』을 비극적 세계관이나 운명론으로 해석하는 논의들이 변주를 거듭하면서 재생산되는 것을 들 수 있다.¹

1 김양선, 「한국 전쟁에 대한 젠더화된 비판의식과 낭만성」, 『페미니즘연구』 제8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08; 김양선, 「전후 여성 지식인의 표상과 존재방식—박경리의 『표류도』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5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9; 이상진, 「탕녀의 운명과 저항—박경리의 『성녀와 마녀』에 나타난 성 담론 수정양상 읽기」, 『여성문학연구』 제1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이상진, 「운명의 패러독스, 박경리 소설의 비극적 인간상」, 『현대

때문에 이 소설들의 다른 주요한 특성인 통속성, 낭만성, 멜로드라마적 특성 등은 암묵적으로 배제되거나 적극적으로 해석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박경리 연구지평이 넓어지면서 멜로드라마적 특성이나 선정적 요소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경리 대중소설에 대한 최근의 여성주의적 독해는 멜로드라마의 사회성과 전복성에 주목한다. 한국전쟁, 전후, 4.19로 이어지는 한국현대사의 국가폭력, 남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멜로드라마의 양식에 담고 있다는 것이다. 김양선은 최근 몇 편의 글을 통해 박경리 장편소설의 멜로드라마적 특성과 사회역사적 의미를 규명한 바 있다.² 『파시』를 향토 멜로드라마로 정의하고, 한국전쟁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속물들의 근대에 항의를 표하는 청춘들의 서사라고 보거나, 4.19혁명을 대중연애소설의 양식에 담아낸 『푸른 운하』와 『노을 진 들녘』을 중심으로 두 소설이 자유당 정권 말기의 정치적, 경제적, 도덕적 혼란과 불안정성의 상태를 멜로드라마의 양식에 녹여냈다고 분석하였다.³ 강지희 역시 60년대 문학사가 4.19세대 젊은 남성 작가들과 단편들 중심으로 재편된 데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경리의 『노을 진 들녘』에서 4.19혁명이 여성의 시민권을 새롭게 창출해내는 방식을 읽을 수 있다고 본다. 이 연구들은 남성작가-순수문학-단편소설 중심의 60년대 문학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경리의 60년대 장편대중소설을 적극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 역시 60년대 여성문학사에서 박경리 대중소설의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여성의 시각에서 쓰인 대항/대안정전 혹은 복수의 정전으로 볼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지는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연구동향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의식하면서 박경리 초기

소설연구』 제5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 2 김양선, 「향토 멜로드라마와 여성의 위치성—박경리의 『파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김양선, 「멜로드라마와 4.19 혁명의 서사적 절합—박경리의 1960년대 대중연애소설 『푸른 운하』, 『노을 진 들녘』 다시 읽기」, 『현대소설연구』 제7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 3 박경리의 4.19 혁명을 다룬 소설들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 강지희, 「4.19 혁명의 재현과 여성 시민권의 창출—박경리와 손장순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68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9; 조운아, 「1960년 전후 박경리의 글쓰기에 나타난 역사의식—『내 마음은 호수』, 『노을진 들녘』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29집,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가 있다.

소설의 특징으로 연구공동체 내에서 암묵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진 ‘한국 전쟁에 대한 젠더화’라는 범주에서 지금까지 연구 장에서 미흡하게 다루어져 온 박경리의 『재귀열』과 『애가』를 적극적으로 읽고자 한다. 그렇다면 어떤 시각에서 읽을 것인가? 이 글에서는 『재귀열』과 『애가』가 범죄, 자살, 불륜, (유사)근친상간, 납치, 감금, 폭력, 실종, 미스터리한 정체성과 같은 ‘여성고딕풍’⁴의 선정적 요소와 멜로드라마의 양식을 끌어와서 한국전쟁에 대한 젠더화된 인식과 비판을 드러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점이 박경리 고유의 여성전통(female tradition)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만 이 글의 논점은 『재귀열』과 『애가』가 박경리 장편소설의 계보, 그리고 195,60년대 여성작가 소설의 계보에서 여성 중심의 대항정전을 ‘대표’하고, 여성문학의 전통을 구현한 ‘뛰어난’ 작품임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소설들이 전쟁, 여성, 선정주의라는 하위장르의 특성을 구현한 여성(문학) 전통을 매핑(mapping)화하고 촘촘히 기술하는 출발지점임을 밝히는 데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2 청년-여성의 생존에 기입(記入)된 전쟁, 양공주와 코뮤니스트

부당하게 저평가되어 온 작가와 작품을 발견하고 재평가하는 작업, 소위 여성 중심의 대항 정전(counter-canon)을 만들 때 전제가 되는 것은 ‘문학성’ 자체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일레인 쇼윌터가 여성(문학) 전통을 가정소설, 감상주의 소설 등 대중소설에서 찾거나, 샌드라 길버트와 수잔 구바가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기보다는 주요 (여성)작가들에 초점을 맞추되, 일

4 리타 펠스키가 언급하듯이 고딕소설은 여성을 주동인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관점을 택하고 있다. 고립된 환경에 갇혀있는 여주인공이 위험에 처하고, 그녀를 파괴하고 복종시키려고 하는 남자의 잔인함과 대결한다는 점에서 『재귀열』은 여성고딕소설적 특성을 일부 지닌다. 펠스키는 고딕소설이 저급하고 열등한 형식으로 평가되었지만 소위 정교한 문학과는 다른 대안적인 미학적 경험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이는 멜로드라마의 문학적 가치를 재평가할 때도 적용된다. 리타 펠스키, 이은경 역,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 도서출판 여이연, 2010, 240-246쪽 참고.

탈, 전복, 광기와 같은 주제로 일관성 있게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⁵ 대중장르인 가정소설이나 감상주의 소설, 선정소설, 여성고딕소설이 표현의 도구인지, 억압의 도구인지, 혹은 전복의 도구인지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여성 글쓰기의 ‘연속적 전통’이나 ‘여성의 문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작품들을 여성 전통의 일부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한다.⁶ 요컨대 이 글에서는 여성 중심의 대항정전, 그리고 여성(문학)의 전통은 계속 형성, 수정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박경리 대중소설의 출발지점에 놓인 『재귀열』과 『애가』를 프로토텍스트(proto-text)⁷로 보고자 한다. 물론 전쟁과 여성이라는 핵심주제, 즉 전후에 대한 젠더화된 인식과 비판은 박경리 초기 단편소설부터 그 기원을 잡을 수 있다. 「불신시대」와 「암흑시대」, 「전도」는 전후 여성의 엄혹한 현실과 생존 의지를 밀도있게 보여준 바 있다. 게다가 어느 작가나 초기소설들은 거칠고 소박한 형태로나마 이후 작품세계의 원형을 내장하고 있으므로 초기소설이 대체로 프로토텍스트라는 점이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하지만 남성-단편-본격-순수소설 중심의 정전의 외곽에서 대항/대응정전을 제시해 왔던 페미니즘의 정전 형성 전략을 떠올린다면 대중성과 선정성을 띤 박경리의 장편소설들의 출발점에 있는 『재귀열』과 『애가』가 이 글에서 문제의식으로 설정한 프로토텍스트에 더 합당하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재귀열』(1959, 『주부생활』)과 『애가』(1958, 『민주신보』)는 전쟁 직후를 배경으로, 청춘남녀들의 사랑과 얽히고설킨 삼각관계를 그린 전형적인 대중연애소설이다. 이면적으로는 전후 양공주와 전쟁미망인이라는, 정상가족의 범주에서 배제된 여성들의 생존과 억압된 욕망을 다루고 있다. 이런 대중성, 선정주의, 주변부성에도 불구하고 박경리 소설의 문학적성, 미학적성은 ‘여류다움의 거절’이라

5 릴리언 로빈슨, 「텍스트의 반란—페미니스트가 정전에 반기를 들다」, 일레인 쇼월터 엮음, 신경숙·홍한별·변용란 역, 『페미니스트 비평과 여성문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141-146쪽.

6 위의 글, 149쪽.

7 프로토(proto)는 ‘최초의, 원래의’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이다. 이 글에서는 박경리 작품세계에서 서사전개나 인물형상화, 모티프 등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맹목적으로나마 뚜렷이 보여주는 초기 장편소설을 ‘프로토텍스트(proto-text)’로 지칭하고자 한다.

는 정의에서 드러나듯 여성적 특성을 암묵적으로 삭제한 채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유종호는 독자들이 “여류작가에게 기대하는 것은 대체로 섬세한 감성과 필치, 역동적인 현실묘사보다는 잔잔한 내성의 기록, 현실의 어두운 면에 대한 지향보다는 감미로운 긍정, 가열하고 처절한 생동성보다는 호소하는 서정성”이라고 정의하면서 박경리는 “여류적인 것과는 동떨어진 시정(市井)의 산문적인 소재”를 다룸으로써 여성적인 것에서 탈피했다고 평가한다.⁸ 서정성-여성적인 것과 산문성-보편적인 것(남성적인 것)을 대립적으로 보면서 박경리의 소설을 소위 ‘여류다움의 거절’로 보는 평가는 60년대 문학 장에서 강신재의 소설을 ‘여류다운’ 특성으로 범주화하고, 그 반대에 박경리의 소설을 놓는 비평적 관습과 관련이 있다.⁹ 하지만 “어려운 산문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여인들을 일상생활에서 포착하는” 박경리 소설의 공통적 특성을 ‘여류다운’ 것과의 동떨어짐으로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산문성, 혹은 산문적 현실이라는 양식적, 주제적 특성을 ‘비(非)’여성적인 것으로 범주화하고, 여성의 경험/체험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 사회역사적 현실과 관련이 있으며, 그 체험이 남성-젠더와는 다르더라도 위계화된 어떤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평가이다.

유종호는 초기 단편 「계산」의 여주인공 회인이 “고집스러운 결벽성, 오만한 탈속함”을 지닌 박경리 소설의 여주인공의 원형을 이루며, 첫 장편 『애가(哀歌)』를 박경리 소설 전체의 특징을 함축한 포괄적 제목으로 언급한다. 유종호의 평가는 초기 단편→초기 장편→『시장과 전장』 같은 정전화된 장편→『토지』로 이어지는 발전 개념으로 박경리 작품세계의 궤적을 파악하는 것이다.¹⁰ 이와 같은 분석

8 유종호, 「여류다움의 거절」,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사, 1995, 411쪽.

9 김주연도 이와 유사하게 여성작가들의 작품경향을 ‘작품의 문맥이 묘사 중심이나, 서술 중심이나’라는 기준으로 분류하면서 박경리를 서술에 의한 소설구성으로, 강신재를 묘사 중심으로 분류한다. 묘사와 서술, 강신재적 경향과 박경리적 경향은 60년대 여성문학을 두 경향, 즉 감각성과 산문성의 구도로 파악한 것이다.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문학제도와 양식』, 소명출판, 2012, 221-222쪽.

10 박경리의 문학세계를 단편→장편→『토지』로, 사적 체험에서 사회역사적 지평으로의 확장이라는 발전 개념으로 보는 것은 박경리 연구(사)에서 거의 굳어진 것이며, 유임하의 관점도 그러하다. 그는 『애가』를 “전쟁을 여성의 비판적 시각에서 조망한 『시장과 전장』의 원점에 해당”(89쪽)하는 작품으로 설정하고, “전쟁과 전후사회에 대한 고발을 애정구도로 대체

이 가능한 것은 박경리 소설 전체에 걸쳐 ‘상호텍스트성’이라 불릴 만한 유사한 인물, 모티프, 스토리가 반복되기 때문이다.¹¹

『재귀열』과 『애가』에 한정하면, 『애가』의 양공주가 된 지식인-청년-여성은 단편 「비는 내린다」의 지영에게서 출발하고, 『재귀열』에서 코뮤니스트 남편/애인의 월북은 「벽지(僻地)」에서 이복언니 숙인의 월북이라는 모티프와 연결된다. 양공주와 근친의 월북이라는 모티프는 두 소설이 전쟁의 영향력에서 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대중소설 속에 삽입된 이 모티프는 본격소설에서 다루는 방식과 사뭇 다르다. 월북을 사상적 문제로 보기보다는 연인과의 동반 월북이라는 사적인 감정의 문제로 그리거나, 여성-개인의 생존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부각시킨다. 「벽지」에서 주인공 혜인의 언니 숙인은 전쟁을 계기로 코뮤니스트였던 게 드러나고 9.28수복 때 박이라는 동료를 따라 월북한다. 하지만 숙인은 코뮤니스트이면서도 “인간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는” 낭만성을 지닌 사람으로 혜인에게는 인지된다.

『재귀열』에 와서 근친(연인이나 남편)의 월북은 여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적 문제로 나타난다. 난우와 송우 두 자매는 한국전쟁을 혹독하게 겪었다. 난우는 연인이었던 민석구가 6.25 때 “이북에서 내려온 당의 무슨 여자라는 사람하고 좋아 지냈고, 또 사실 그 자신이 열렬한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난우를 배반하고” 월북을 한 데다 동창인 서상철에게 빨갱이의 애인이라는 헐박에 못 이겨 정조를 잃게 된다. 언니 송우는 해방 직전 동경에서 약혼자 상훈이 학병으로 끌려간 뒤 친구였던 문성환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다.

하여 간접화하며 전쟁의 상처를 담아내려는 작가의 의욕에 비해 완성도는 떨”어진다고 평가하며 『표류도』를 안정된 서사구조를 확보한 더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평가한다. 박경리의 50년대 후반 장편양식을 “애정관계에 바탕을 두고 전쟁피해자의 현재를 서사화하는 방식(110쪽)”의 ‘원점’으로 보는 것은 이 글에서 필자가 ‘프로토텍스트’로 보고자 하는 것과 유사하다. 유입하, 「박경리 초기소설에 나타난 전쟁체험과 문학적 전환」, 토지학회 편저, 『박경리와 전쟁』, 마로니에북스, 2018.

11 넓게는 “신체의 기형성을 포함하여 질병, 폭력에 의한 육체적 훼손, 불임, 유전적인 정신이상 증세, ‘나쁜(혹은 위협한)’ 성격 등으로 고통 받는 다양한 결손인물들을 창조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상진, 「예외를 보는 시선과 더불어; 박경리 소설의 결손 인물」, 『여성문학연구』 제 3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353쪽.

남편 문성환을 따라 평양에서 살던 그녀는 일사후퇴 때 공산당원인 남편의 손에서 빠져나와 월남하는 길에 아들을 잃고 ‘더럽혀진 몸’이 된 후, 부산에서 가족과 조우한다. “전쟁이 나고 자식을 잃고 못 사내에게 몸을 버려서까지 그래도 살겠다고 전쟁터를 넘어온 송우”¹²는 전후에 성적으로 방종한, 자기를 방기(放棄)하는 삶을 산다.

두 자매에게 가해진 성폭력, 근친의 상실은 개인적 사건이나 비극이 아니다. 한때 연인, 남편이었던 사람이 코뮤니스트로 자기의 이념을 좇아 월북하면서 이 여성들에게 ‘빨갱이’ 혹은 ‘빨갱이의 가족’이라는 사상적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다. 이 낙인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위해서 이들은 자신의 성을 교환하거나 바쳐야 했다. 즉 이 여성들에게 가해진 사상적인 것, 성적인 것의 이중구속은 한국전쟁이라는 비상시국에서 국가의 통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고, 여성의 경우 ‘정조의 상실’, ‘겹탈’과 같은 폭력을 동반한 성적 위협으로 여성의 몸에 새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¹³

한편 『애가』에서 “전쟁이란 거대한 광풍이 두들기고, 부수고, 짓밟고 가버린 자국,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그것은 너무나 생생한 낙인”(225쪽)으로 진수에게 새겨진 낙인은 그녀가 ‘양공주’였다는 사실이다.

육이오동란이 일어난 해 진수는 아버지를 잃었다. 진수는 전쟁 중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무진히 고생을 했다. 피란살이를 전전한 끝에 영문과를 중퇴한 그는, 별도리 없이 미군부대에 취직을 했던 것이다.

어느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인기척 없는 후미진 길이었다. 그 길에 돌연 나타난 지프차에 납치되어 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수풀이 우거

12 박경리, 『환상의 시기-박경리 문학전집 10』, 지식산업사, 1980, 239-240쪽. 앞으로 작품 인용은 이 책의 쪽수를 따른다.

13 김은하는 전시 하 여성은 성적 폭력의 피해자임에도 수치심 때문에 증언과 고발의 주체가 되지 못하지만, 『재귀열』에서는 오만하리만큼 고결하고 금욕적인 태도로 남성들에게 수치심을 되돌려주는 방식을 통해 저항한다고 말한다. 김은하, 「포스트 한국 전쟁과 여성적 승고의 글쓰기-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56권 1호,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2017, 46쪽.

진 교외 어느 곳에서 진수는 미군 장교 제임스에게 몸을 버렸던 것이다. 물론 돌발적인 우연은 아니었다. 제임스는 오랫동안 진수를 사모하고 있었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깨닫고 그러한 비상수단을 써서 진수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제임스는 진심으로 진수가 자기의 아내가 되어줄 것을 바랐다. 그러나 진수는 제임스에 대하여 깊은 저주와 증오 이외의 감정을 가질 수는 도저히 없었다. 그에 대한 복수심과 자포자기하는 마음에서 제임스와 동서 생활을 하면서도 진수는 무진히 그 이국의 사나이를 괴롭혔다.¹⁴

소설은 ‘양공주’였던 진수를 열정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의 구현자로 구체화하기 위해 양공주가 된 경위를 위 예문과 같이 자세하게 서술한다. 양공주지만 생존을 위해 양공주가 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진수를 사랑한 미군장교가 납치했고, 둘 사이의 관계의 주도권을 진수가 가졌던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진수와 민호가 산장에서 재회한 후 진수의 입을 통해 “양공주란 이름까지 얻었지만 돈을 위해서 몸을 판 일은 없”고, “향락을 위해 몸을 바친 일은 더욱 없”(321쪽)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민족주의 담론이나 남성 본격문학이 양공주를 타자화한 것과는 다른 양공주의 재현 전략을 보여준다. 이 여성을 낭만적 사랑 서사의 순결한 주인공으로 위치 짓는 대중문학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다. ‘양공주’를 수난자 혹은 민족-국가를 오염시키는 위험한 여성으로 회수하는 기존 담론과 달리 여성 주체의 선택의 문제로 보는 관점은 초기 단편 「비는 내린다」의 ‘지영’에게도 적용된다. 지영은 전쟁 전 연인이 언니 지숙과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하자, 전쟁을 계기로 가족과 결별하고 미군장교로 추측되는 외국인 과 동거를 한다.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낭만적 사랑의 좌절로 인한 결핍감을 뒤뜰린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이처럼 청년-여성의 생존과 일상에 기입된 전쟁은 양공주라는 섹슈얼리티의 낙인, 코뮤니스트의 가족이라는 사상적 낙인으로 형상화된다. 『재귀열』과 『애

14 박경리, 『타인들/애가(哀歌)－박경리문학전집 9』, 지식산업사, 1980, 225-226쪽. 앞으로 작품 인용은 이 책의 쪽수를 따른다.

가』는 초기 단편소설에서 맹아적으로 제시되었던 이 전시 하 여성의 조건을 여성 인물의 열정적이거나 낭만적 사랑, 납치, 성폭력, 실종과 같은 선정적이고 멜로드라마적인 요소에 녹여냈다는 점에서 초기 소설과 다르며, 오히려 60년대 작가의 대중장편소설의 특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3 섹슈얼리티와 사랑, 정념의 두 축

『재귀열』과 『애가』는 감금, 납치와 같은 여성 몸이 위협당하는 상황 한 편에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욕망을 통제하려는 당대의 규율에 도전하는 여성을 보여준다. 바로 전쟁미망인이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표류도』의 전쟁미망인 현희는 남편-가장을 대신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생존형, 경제적 인물이면서도, 집 밖, 결혼 제도 바깥에서 낭만적 사랑을 실현하려는 욕망하는 주체로서 양가적 면모를 지닌다. 또한 그녀는 속물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이지적으로 자신의 불륜을 해석하는 이성적 주체이기도 하다. 반면 두 소설은 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를 남편의 동생에 대한 연정이나 애욕, 친족간의 불륜이라는 선정적 방식으로 풀어낸다. 전쟁미망인들의 정념의 대상이 죽은 남편의 남동생이라는 유사 근친상간의 성격을 띠고, 욕망의 좌절과 윤리적 금기에 대한 자기 통치의 결과가 자살(시도)로 끝나는 선정적 이야기 구도도 유사하다. 근친상간과 성폭력은 다시 『노을 진 들녘』의 핵심 사건과 이어지고, 근친상간에 대한 자기 처벌의 방식으로 영재가 성삼을 유인하여 함께 죽는다는 극단적인 결말을 떠올리면 이 소설들이 60년대 이후 박경리 장편소설들의 프로토텍스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재귀열』에서 영민의 형수 선숙은 결혼 전 촉망받는 여류 피아니스트이지만 지금은 영민을 죽은 남편과 동일시하면서 그에게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기를 꺼리지 않는다.

차가운 눈초리, 경멸에 찬 눈초리, 패륜의 여자라고 힐책하는 눈초리, 일찍이 나는 그런 눈을 본 일이 없다. 나는 산산이 부서졌다. 나는 진흙길에 내던져졌다. 자존심도, 나의 교양도, 오만도, 의무도, 모두 짓밟혀지

고 말했다. 이젠 나를 도로 찾을 수 없다. 어찌하여 내 그리움이 욕된 것
이란 말인가? 어찌하여 그것이 죄스럽단 말인가? 나는 이 세상의 풍속
을 경멸하는데… 그러나 벽찬 일이다. 나는 죄인의, 패륜의 여자. 누가
지어준 이름이나. 풍습이 지어준 이름이지… (319쪽)

선숙은 전쟁미망인의 욕망을 ‘죄인’, ‘패륜’으로 취급하는 ‘풍습’=가부장적 이데
올로기에 대해 자살이라는, 자신의 존재성을 끝맺는 방식으로 항의한다. 규율을
넘어서는 정념의 세계는 『애가』에서도 부차적 플롯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진다.
상화는 미망인인 형수 영옥과의 관계를 ‘저주스러운 쾌락’, 영옥의 섹슈얼리티를
‘동물적인 애정’이라고 규정한다. 이 작품에서도 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는 도
덕적 단죄의 대상이 된다. 영옥은 상화의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낙태시키려 하
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다. 상화와 영옥의 성적 관계는 대등하지 않으며, 도덕적
단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여성인 영옥뿐이다.

두 초기 장편에서 전쟁미망인의 욕망이 남편의 동생을 통해 발견되는 금기
의 위반은 도덕, 제도, 이성에 균열을 내는 정념의 등장을 선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작가는 이 전쟁미망인의 위반을 끝까지 가져가지 않는다. 『재
귀열』의 선숙은 자살로, 『애가』의 영옥은 임신과 낙태 시도 끝에 재가를 해서 섬
마을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단죄하거나 회수한다. 이런 선택
은 전쟁미망인에 대한 사회의 감시 및 통제와 타협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¹⁵ 한
편으로는 강렬한 감정표출과 같은 ‘과잉’의 양식, 선과 악이 나누어지는 도덕적
양극화라는 멜로드라마의 양식이 반영된 것이다.

15 이임하에 따르면 1950년대 전쟁미망인의 규모는 최소 3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사회는
전후 향락을 일삼고 경박한 성윤리를 신념으로 삼는 ‘전후파’ 여성들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전쟁미망인을 지목했다. 전쟁미망인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가정
에서의 경제권을 장악한 데다 그들을 규제할 수 있는 권력, 즉 남편이 부재하면서 이 여성들
이 남성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 ‘전후파’ 여성, 집밖의 여성은
쉽게 향락과 허영에 빠져든다는 논리는 이 부상하는 신흥 여성에 대한 사회의 위기의식 내
지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다.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213-
214쪽.

『재귀열』은 ‘사랑서사’로 귀결되는 박경리 대중소설의 공식, 선인의 보상과 악인의 처벌이라는 멜로드라마의 전형적 양식에 맞게 두 자매가 ‘사랑’으로 전쟁으로 인한 내상을 극복하는 것으로 끝난다. 소설 ‘재귀열’이라는 제목은 송우와 난우의 삶이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재귀열이라는 글자가 눈에 띄었어요. 이상한 글자였어요. 도무지 병명 같지가 않아서 종이 위에다 써봤죠. 열이 또다시 돌아온다. 물론 그런 뜻인데 그 열이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사랑이 다시 돌아온다는 문구를 종이 위에 무수히 써봤어요. 마치 사춘기에 든 소년처럼.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메마른 마음에도 어떤 사소한 우연으로 애정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요. 나는 사실 서상철이라는 사나이보다 민석구라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을 난우씨의 마음을 더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난우씨. 이쯤 말하면 내 뜻을 아시겠죠? 난우씨 마음 속에 민석구라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이상, 당신에게 그리고 나에게 열이, 사랑이 돌아온 것을 왜 막아야 합니까? (340쪽)

성폭력의 트라우마, 아들의 죽음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자매는 결혼을 거부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다. 그랬던 그녀들이 이 열=사랑의 회귀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깊은 내상을 극복한다. 송우는 담배와 술을 끊고 양재학원을 다니는가 하면, 상훈이 두고 간 자가용을 이용해 생활의 안정을 찾는다. 난우는 이모가 있는 시골로 내려가 조산원을 운영하고, 서상철과의 악연을 끊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외과의사인 허영민과의 사랑을 완성한다. 전후의 속악한 현실과의 결별이 사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낭만적인 이상은 이후 『시장과 전장』의 주제이기도 하다.

『애가』의 주 스토리라인은 민호와 진수, 설희 사이의 삼각관계다. 이 삼각관계 연애와 병치되면서도 대조되는 연애가 현희와 정규, 오형 박사 사이의 삼각관계다. 진수-민호-설희의 삼각관계가 법적 부부관계를 깨는 진수-민호의 열정적 사랑과 설희의 자살, 진수의 외국행으로 귀결된다면, 오형 박사-현희-정규의 삼각관계는 오형 박사가 설희의 자살을 계기로 젊은 세대인 정규와 현희의 결합을

위해 미국행을 택하고 이 둘이 시골로 내려가는 것으로 끝난다. 여기에 설희를 사랑하던 시인 상화까지 고려하면, 이 소설은 두겹, 세겹의 삼각관계와 사랑의 좌절과 성취를 다루고 있다.

이 청춘들의 사랑 서사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제도와 금기를 거스르는 진수와 민호의 열정적 사랑이다. 결혼 후 우연히 산장에서 진수와 재회한 민호는 그녀가 “창부라고 좋고 마녀라고 좋”다고 생각하며,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생활세계의 윤리를 일탈하여 ‘이상한 정열’의 세계에 빠져든다.¹⁶ “양공주일지라도 그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364쪽)”는, 이성으로 제어되지 않는 정념은 사회의 통념과 윤리를 거스르는 운명적 사랑을 정당화하는 감정의 영역이다. 이 정념과 열정적 사랑이 공동체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소설은 둘의 사랑의 완성을 위해 설희가 자살을 택하고, 남은 사람들이 설희의 죽음을 애도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보여준다. 당대의 윤리, 그리고 독서공동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충족하기 위해서 열정적 사랑에서 시작해서 낭만적, 이상적 사랑으로 끝을 맺는다. 『애가』의 정규와 현희처럼 전후의 트라우마와 장애요소를 딛고 사랑하는 사람 둘이 시골로 떠나거나, 낭만적 사랑의 성취를 위해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결말은 4.19를 배경으로 한 『푸른 운하』, 『노을 진 들녘』의 결말로 이어진다. 무엇보다도 열정적 사랑의 정념과 낭만적 사랑의 이상이 행복하게 결합하기 위해서 마녀이거나 요부인 여성(진수)을 탈성화(脫性化)하고 진정성 있는 주체로 거듭나게 한다.

진수는 누구의 죽음 같은 것을 바라는 여자는 아냐. 너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실과 선(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우리는 진실했다. 그러나 그 진실의 결과는 악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누구의 죄랄 수는 없어. 우리는 그렇게 아슬아슬한 이별과 해후 속에 휘말려 들어갔을 뿐이니까. 아무튼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할 게고, 우리의 진실은 그냥 버려질 수는 없는 것이라 나는 생각해. (385쪽)

16 현실적으로는 불륜에 해당하는 열정적 사랑과 열정적 사랑을 추동하는 ‘마녀’이자 ‘요부’인 여성, 그녀의 섹슈얼리티에 탐닉하는 남성, 그리고 이들의 파멸은 『성녀와 마녀』에서 선명하게 그려진 바 있다.

진수가 설희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사랑의 독점이 아닌 완성을 위해 외국으로 떠난 뒤 민호의 생각은 위와 같다. 민호는 열정적 사랑의 상대자를 윤리적이고 완전한 존재로 위치짓고, 자신들의 사랑을 “결과는 악이 되고 말”았지만 ‘진실’했다고 여김으로써, 죄책감을 지우고 새로운 사랑과 삶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박경리가 택한 방식은 전후 국가와 사회가 요구했던 재생, 재건의 논리와는 거리가 있다. 낭만적 사랑, 열정적이고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이상은 국가 주도의 재건, 재생의 통치술과는 달리 전후를 책임질 남녀 청년 세대가 개인과 감정, 열정을 통해 소통과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을 보여준다.¹⁷ 그런 점에서 『재귀열』과 『애가』는 멜로드라마의 선정성과 낭만적, 이상적 사랑의 완성을 통해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박경리 장편대중소설의 특징적 국면의 출발에 해당하는 프로토텍스트로서 의미가 있다. 이는 ‘여류’, ‘여성적’, ‘감상적’인 것으로 구획지어진 전후 여성문학 장의 특성과는 다른 박경리 소설 고유의 ‘여성 전통(female tradition)’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필자는 다른 글에서 박경리 초기 소설의 두 축으로 전쟁미망인, 여성-청년의 서사를 들고 그 특성을 논한 바 있다.¹⁸ 『애가』와 『재귀열』은 여성-청년, 부분적으로는 전쟁미망인을 중심으로 정념과 증오, 낭만이 혼재한 사랑의 서사를 ‘선정적’으로 구현한다. 두 소설은 전후의 불안한 사회를 남성의 서사와는 다르게 그렸다는 점에서 남성 중심의 정전 외부에서 정전의 유동성을 심문한다. 50년대 후반에 발표된 두 소설의 주요 모티프들은 이후 60년대 장편소설들에서 때로는 전쟁미망인의 섹슈얼리티나 생존의 서사(『시장과 전장』)로, 여성-청년의 불안한 사랑의 서사(『파시』, 『푸른 운하』, 『녹지대』)로 확장되어 간다. 그런 점에서 『재귀열』과 『애가』는 이후 장편들의 세계를 예시하는 프로토텍스트로서, 박경리 문학

17 4.19를 다룬 박경리의 60년대 소설 『푸른 운하』, 『노을 진 들녘』이 여기에 해당한다.

18 김양선, 「지적 해부와 민감성 사이, 전후 현실에 대한 젠더화된 인식—박경리의 전후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7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세계 고유의 여성 전통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¹⁹

하지만 필자는 두 소설을 멜로드라마의 전복성이나 저항성을 지닌 텍스트로 적극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지는 않는다. 다만 낭만적 사랑과 불륜, 폭력과 증오가 공존하는 텍스트의 결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면 순응과 위반, 모순과 균열이 끊임없이 진자운동(振子運動)을 거듭하는, 극단적이고 충동적인 세계와 낭만적 이상이 공존하는 이 텍스트의 분열성은 작품으로서의 완성도가 미흡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박경리의 이후 작품세계까지 지속되고, 확장되는 작가 고유의 특징이며, 60년대 여성작가들의 글쓰기에 일정 정도 습합(濕合)된 여성적 전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박경리, 『타인들/애가(哀歌)-박경리문학전집 9』, 지식산업사, 1980, 207-386쪽.

_____, 『환상의 시기-박경리 문학전집 10』, 지식산업사, 1980, 235-345쪽.

단행본

유종호, 「여류다움의 거절」,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사, 1995, 411쪽.

유임하, 「박경리 초기소설에 나타난 전쟁체험과 문학적 전환」, 토지학회 편저, 『박경리와 전쟁』, 마로니에북스, 2018, 87-111쪽.

이임하,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서해문집, 2004, 213-214쪽.

리타 펠스키, 이은경 역,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 도서출판 여이연, 2010,

19 테리 이글턴은 그 자체로 내재적 가치가 있는 문학작품이나 전통 같은 것은 없다. ‘가치’는 타동사적인 어휘이며, 가치가 타동사적이라는 말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치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는 의미라고 말한다. 문학성, 미학성을 본질적이고 자명한 기준을 가진 것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는 기존 문학 장의 규약과 차별되면서 사회역사적 조건과 독서공동체의 취향에 따라 변화하는, 예컨대 대중소설에 기반을 둔 여성문학 전통을 정립할 때에도 적용된다. 리타 펠스키, 앞의 책, 226쪽.

226쪽, 240-246쪽.

릴리언 로빈슨, 「텍스트의 반란—페미니스트가 정전에 반기를 들다」, 일레인 쇼월터 엮음, 신경숙·홍한별·변용란 역, 『페미니스트 비평과 여성문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141-149쪽.

벤 싱어, 이위정 역,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문학동네, 2009, 33-436쪽.

피터 브룩스, 이승희·이혜령·최승연 역, 『멜로드라마적 상상력』, 소명출판, 2013, 25-337쪽.

논문

강지희, 「4.19 혁명의 재현과 여성 시민권의 창출—박경리와 손장순의 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68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9, 7-36쪽.

김양선, 「한국 전쟁에 대한 젠더화된 비판의식과 낭만성」, 『페미니즘연구』 제8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2008, 197-222쪽.

_____, 「전후 여성 지식인의 표상과 존재방식—박경리의 『표류도』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5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9, 235-256쪽.

_____, 「지적 해부와 민감성 사이, 전후 현실에 대한 젠더화된 인식—박경리의 전후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47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131-149쪽.

_____, 「향토 멜로드라마와 여성의 위치성—박경리의 『파시』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269-292쪽.

_____, 「멜로드라마와 4.19 혁명의 서사적 절합—박경리의 1960년대 대중연애소설 『푸른 운하』, 『노을 진 들녘』 다시 읽기」, 『현대소설연구』 제7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0, 119-144쪽.

김은하, 「포스트 한국 전쟁과 여성적 승고의 글쓰기—박경리의 초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56권 1호,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2017, 37-62쪽.

이상진, 「탕녀의 운명과 저항—박경리의 『성녀와 마녀』에 나타난 성 담론 수정양상 읽기」, 『여성문학연구』 제1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289-324쪽.

_____, 「운명의 패러독스, 박경리 소설의 비극적 인간상」, 『현대소설연구』 제 5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373-408쪽.

_____, 「예외를 보는 시선과 더블: 박경리 소설의 결손 인물」, 『여성문학연구』 제3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351-382쪽.

Abstract

The Position of Women's Literary History of Park Kyung-ri's Early Full Length Novel
—How did war, woman and sensationalism become the tradition of women's literature

Kim, Yangsun

This article intend to actively evaluate Park Kyung-ri's novels *Relapsing Fever*(*Jae Gui-yeol*) and *Lament*(*Aega*), which have so far been poorly dealt with in the field of research, as a prototext at the starting point of the tradition of Park Kyung-ri's writing, which embody the characteristics of war, woman and sub-genre of sensationalism.

First, in *Relapsing Fever*(*Jae Gui-yeol*) and *Lament*(*Aega*), the war engraved in youth-women's survival and daily life is shaped by the stigma of sexuality called Yang Gong-ju and the ideological stigma of being a family of communist. The two novels incorporated the conditions of women under wartime, which were presented in early short stories, into sensational and melodramatic elements such as passionate or romantic love, kidnapping, sexual violence or disappearance of female characters.

In addition, the two novels unravel the sexuality of war widows in a sensational way, such as love, affection for her husband's younger brother, and fraternal affair. And these show the possibility that the young generations seek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through individuality, emotion and passion, while presenting the ideal of romantic love, passionate and fateful love

The two novels question the fluidity of the canon outside of the male-centered canon, as portraying the unstable post-war society differently from the male narrative. The main motifs of the two novels are later extended to the sexuality or survival of war widows (Market and Battlefield), the anxious love narratives of young women (Seasonal Fish Market, the Blue Canal, and the Green Zone). In conclusion, *Relapsing Fever*(*Jae Gui-yeol*) and *Lament*(*Aega*) are the prototexts that exemplify the world of Park Gyeong-ri's full length popular novels in 1960's, and should be evaluated as a female writing tradition unique to Park Gyeong-ri.

Key words: female tradition, prototext, melodrama, war, gender, sensationalism, popular literature

본 논문은 2020년 7월 23일에 접수되어 2020년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0년 8월 2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